

외부공간의 색채

박 돈 서 <거제대학 학장>

1. 외부공간의 특성

학술적인 정의는 아니겠으나 흔히 외부공간이라 함은 건축물의 실내공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광장, 접근로, 정원, 아케이드, 선관가든, 포치, 중정, 베란다, 테크 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건물이 밀집된 도시에서는 외부공간을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라고 정의해도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간은 건축에서 부수적인 요소이지만, 건축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해주고, 건축 내·외부를 연결해주며, 건축의 질을 한층 풍부하게 하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실내공간에 비해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실내공간은 그 건물 사용자만의 것이지만, 외부공간은 사용자는 물론 지나가는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 즉 도시민이나 여행자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외부공간은 공공성을 띤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공공성을 가진 외부공간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첫째, 현대도시의 삭막함과 압박감,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는 도시민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고 여유를 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둘째, 사람과의 만남, 간단한 점심 등의 식사, 신문잡지 등의 가벼운 독서, 휴식 등의 실용적 기능을

말는 터전이 되는 것이다.

셋째, 전시, 간단한 공연, 토론, 쇼핑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기 있는 이벤트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넷째, 도시와 건축물 사이의 전이 또는 매개공간으로서의 기능이다. 현대의 거대건축이 주는 위압감과 비정함을 완화하고 사람들과 부드럽게 관계지어 주는 것이 이러한 공공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인공물로 들어차서 자연과 거의 단절된 도시공간에서 그나마 수목·잔디·화체 등 푸르름이나 물과 같은 자연을 대하게 하여 자연을 향한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는 역할도 이러한 외부공간이 담당하는 것이다. 더 넓은 의미의 외부공간은 도시광장, 가로, 공원까지도 포함한다고 보겠다. 이 글에서는 광의의 외부공간을 다루는 것으로 한다.

2. 외부공간의 종류

덴마크의 얀 겔(Jan Gehl)교수는 외부공간에서의 인간활동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필요활동, 임의활동, 사회활동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세가지 활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각각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필요활동」은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하는 것,

쇼핑, 버스나 사람을 기다리는 것, 심부름을 가는 것, 우편배달 등 크건 작건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도의 차가 있으나 필요에 쫓겨서 하는 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물리적 환경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매일 매일 되풀이 되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임의활동」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고, 또한 시간과 장소가 허락할 때 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맑은 공기를 찾아 산책하는 것, 걸터앉아 일광욕하는 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에서 변화함을 즐기기 위해 멈춰 서는 일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외부공간의 조건이 최적일 때, 즉 날씨나 장소가 적합할 때에만 일어난다. 이러한 관계는 외부공간에서 일어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므로 물리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외부공간의 질이 빈약하면 「필요활동」밖에 안 일어난다. 외부공간의 질이 높을 때에 「필요활동」의 시간은 분명히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이 일어나는 빈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부공간의 물리적 조건이 좋아지면 멈춰 서서 구경하거나, 앉거나, 먹거나, 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필요활동」만이 아니고 폭넓은 「임의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질이 떨어지는 외부공간에서는 최소한의 활동밖에는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은 서둘러 귀가길에 오를 것이다.

「사회활동」은 외부공간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활동이다. 거기에는 어린이들의 놀이, 인사와 대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활동, 그리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회활동」, 즉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는 수동적인 교류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사회활동」은 거의 모든 경우,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활동이 발전된 것이므로 「합성」활동이라고 불려도 될 것이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있고, 만나고, 스쳐 지나가며 시선을 주고 받으므로 앞서의 두 가지 활동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의 활동을 기준으로 공간을 나눈다

면 「필요활동」은 도로, 버스정거장, 택시정거장, 전철역, 수퍼마켓 등 주로 교통공간이 된다. 「임의활동」은 광장, 공원, 쇼핑몰, 아케이드, 페데스트리언 데크(보행자용 데크) 등이 될 것이다. 「사회활동」의 공간은 따로 있다기 보다는 「필요활동」공간과 「임의활동」공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활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나 어린이 놀이터, 노천 공연장 등도 여기에 속한다.

3. 외부공간의 계획목표

「필요활동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볼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각종 사인류가 잘 돼 있어 알아보기 쉽고 또한 뜨거운 햇볕이나 비·바람 등을 막아주고 사람이 움직이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임의활동공간」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과 친근감을 주어야 하고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연요소의 도입이 매우 효과적이다. 꽃과 나무, 잔디밭, 분수나 연못, 인공 시냇물 같은 수경공간은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향수를 달래줌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사회활동공간」은 필요활동공간과 임의활동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정보도 교환하고, 친교를 나누는데 지장이 없도록 군데군데 아늑한 구석도 있고 소음도 차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외부공간의 색채계획 현황과 개선방향

4.1 간판의 색

근래 우리 나라의 도시색채는 너무 색조가 강하고 자극적이어서 사람들에게 지나친 시각적 부담을 주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외부공간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모든 공간이 해당되므로, 바꿔 말하면 도시공간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라 도

1. 품위없고 자
극이 강하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도
시의 간판.
외부공간의
색채경관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소이
다.



2. 선진국의 가로에는 간판이 매우 억제되어 있다. 크기도 작고 수
도 적으며 대개 1층에만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야만 외
부공간이 사람에게 아늑함과 안정감을 주고 도시는 품위와 세련
된 느낌을 준다.



3. 서울 덕수궁 돌담길의 환경디자인.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의욕
적으로 예산을 들여 잘 가꾼 좋은 예이다. 그러나 다소 오버디자
인된 감이 없지 않다.



4. 일본의 예이다. 치분한 색채를 쓰면서 형태에 변화를 주어 보행
자에게 지루함을 없애게 하는 좋은 보도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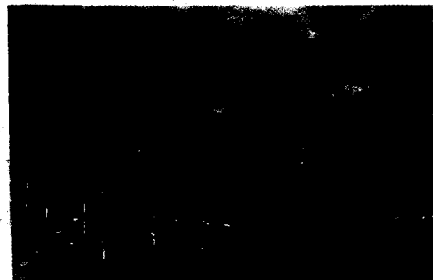


5. 초등학교 교사 외벽의 수퍼그래픽과 조각작품. 어린이들의 외부
공간 다운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서울 흥대 부속
초등학교).

6. 옹벽의 수퍼
그래픽으로
색채도 차
분하고 디
자인이 우
수한 예이
다(수원).



7. 환경조형물의 색채는 외부공간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준다. 기하
학적인 현대건물을 배경으로 유기적인 형태와 선명한 색채가 대
비를 이루면서 광장의 하나의 액센트로 기능하고 있다(호안 미
로 작, 파리 라데팡스 중앙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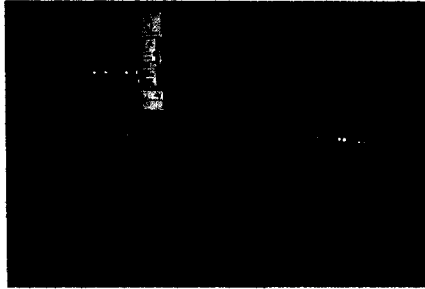
8. 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 놀이터. 녹색과 적색의 보색조화를 이룬
놀이기구의 배색이 상쾌한 느낌을 주고, 놀이기구면서 하나의 조
형물 같은 작품이다(프랑스 마르나빌레 신도시).



9. 선근기든 내려가는 계단을 강한 빨강으로 배색하여 녹색의 수목과 보색조화를 이루게 하고 주변에 신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프랑스 라데팡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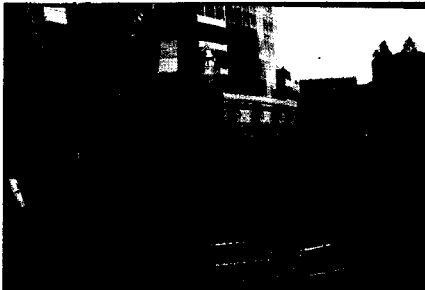
10. 건물 외부의 데크를 변화있게 디자인하여 흰색 난간과 다른 요소와의 명도대비, 하드와 소프트의 대비, 빨강과 녹색의 색상대비 등 효과를 내고 있다(서울).



11. 철도역 대기실의 벤치디자인. 노랑과 파랑의 강한 보색대비로 하나의 액센트가 되게했고 형태도 첨단적이다(스페인 마드리드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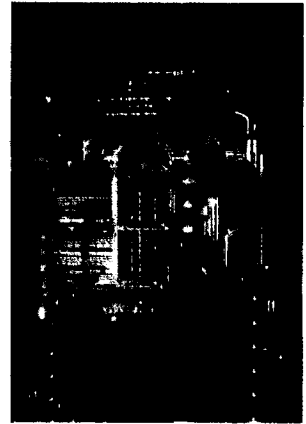


12. 지하철 입구의 쉼터. 청·홍의 한난대비 배색으로 차분한 난색 계로 거의 통일되어 있는 거리에 하나의 작은 임팩트를 주고 있다(독일 스투트가르트).



13. 백화점, 쇼핑아케이드, 극장, 호텔, 음식점 등 복합상업시설인 이 건물은 외부공간을 다양하게 조성해주면서 강한 색조로 즐거움과 활기를 연출하고 있다.

14. 외부공간의 야경은 그 도시의 인상에 큰 영향을 준다.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디자인된 조명효과를 외부공간을 세련되고 인상적으로 만든 예이다(영국 런던 로이드빌딩, 리처드 로저스 설계).



15. 우리나라 전통주택의 외부공간. 자연 그대로의 소재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푸근함을 느끼게 하며 높은 품격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공간 분위기는 현대건축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자연과 대비시키면서 지역적 특성을 잘 표출한 외부공간이다. 회색지붕, 흰벽, 주황색 등은 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색으로 도시나 국토 전체에서 지배적인 인상을 주고 있으며 열대식물과 잘 조화되는 색이다(인도네시아 발리).

시경관을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요소는 간판이다. 그 크기, 한 건물에 몇 개씩 있는 수량, 디자인, 재질 그리고 지나친 색의 남용이 품위없고 혼란스럽고, 정작 잘 보아야 할 공공의 사인이 그 색깔의 홍수 속에 묻혀 정보전달을 더디게 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판은 1점포 1간판으로 억제하고 크기도 건물별로 일정한 규제가 있어야겠고 디자인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4.2 보도의 색

보도 포장의 색이 지적될 수 있다. 최근에 부쩍 늘어난 보도의 요란한 디자인은 그 수준이 낮아 단색으로 처리함만 훨씬 못하다. 올해에 서울 덕수궁 돌담길을 새로 단장했는데, 외부환경을 개선하는데 전문가의 디자인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한 행정의 마인드는 매우 높ی 살만 하다. 그러나 디자이너의 의욕이 지나쳐 오버디자인된 흠이 없지 않다. 물론 빨강·녹색·파랑 등의 보도블럭으로 꽃무늬를 만들고 치졸한 패턴을 만드는 등의 아마추어 작품보다는 차원이 다르나, 덕수궁 돌담에 순응하는 회색을 기초색으로 하고 간간히 주황색의 엑센트를 넣었다 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KOEX나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의 보행자용 데크는 색을 단순하게 처리했거나 세련된 기하학적 패턴으로 호감이 간다.

4.3 수퍼그래픽의 색

최근 지방자치체가 시행되면서 서울의 경우, 각 구청마다 경쟁적으로 웅벽이나 차음벽 등에 수퍼그래픽을 그리고 있는데 대부분이 디자인 수준이 떨어져 외부공간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러 수작이 있는데 서울 신촌 연세대 입구 철로 밑 콘크리트벽의 그림, 서울 장충단 소피텔호텔 옆 동국대 입구 근처의 웅벽 등은 강렬한 색채를 구사하여 자극이 강하지만 디자인이 좋으므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질이 떨어지는 수퍼그래픽은 외부공간을 미화하고자 하는 의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4.4 환경조형물의 색

외부공간에서 그 부피가 작지만 공간의 시각적 질을 좌우하는 요소에 환경조형물이 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정규모 이상(연면적 10,000평 이상 또는 11층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건축공사비 1% 이상의 환경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 효과로 외부공간에 상당히 문화적 분위기를 연출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때에 조형물의 색채는 건물을 비롯한 주변환경과 조화가 있어야 하는데, 조화에는 유사조화도 있고 대비조화도 있으므로 어떤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규모 건축물의 외장색은 대체로 채도가 낮고, 또한 앞서 말한 간판의 무질서한 색도 큰 건축물에는 거의 없으므로, 필자는 대비조화를 권하고 싶다. 매스가 작으므로 건축물이나 그 주변의 색과 강한 대비가 되어도 자극이 강하지 않고 하나의 엑센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4.5 어린이 놀이시설의 색

종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천편일률적으로 몇 가지 순색으로 칠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어린이들이 순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좋아한다고 거기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것은, 그들의 색채감각을 길러주는 데에는 해롭다. 단색, 2색, 3색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한 두 가지 주조색에 엑센트로 한 두 가지 다른 색을 추가하는 등 디자이너들이 전문성 있는 배색을 하여 어린이들의 정서를 세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최근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반대로 색채를 너무 외면하고 목재, 철, 로프, 타이어 등 소재색 그대로 쓰는 예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세련되지 못한 순색계열 일변도의 배색보다는 낫지만, 역시 적절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좁은 부분에 순색을 도입한다든지, 파스텔조의 색을 일부에 쓴다든지 하여 색채를 통한 시각적 즐거움을 줄 필요가 있다.

4.6 전철역사의 색

전철역사 내부는 실내이면서 외부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많은 사람이 통과하거나 기다리거나 표를

사거나 하는 활동, 즉 앞서 설명한 「필요활동」의 장이 되는 공간인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표지(사인)의 색이다. 색의 가독성이 높아야 하고 필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전철에는 노선색이 있으므로 이 색을 적절히 활용할 것이다. 벤치, 라커, 광고물 등의 색도 현재의 상황은 적절하지가 않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플랫폼에 있는 벤치는 3색 또는 4색의 순색으로 칠해져 있고 라커는 고채도의 파랑인데 세련되지 못한 전형적 예이다.

지하철 역사는 지하라는 폐쇄공간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밝아야 한다. 그러나 조도를 높이는 것은 비용문제와 직결되므로, 마감재의 색을 고명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프랑스 마르세이유 지하철 역사는 다음 역사로 이동되면서 그라데이션으로 한가지씩 주조색이 변화한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배색수법의 예이다. 우리 나라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모자이크 미술작품이나 돌부조 등이 없어도 세련된 색채만 가지고 공간의 분위기를 예술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5.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외부공간의 종류는 많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몇 가지를 들어 바람직한 색채의 방향을 설명하였다. 외부공간의 색채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친근하며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향의 것이 좋은 것이다. 저채도·고명도의 난색계가 여기 해당된다. 그러나 단조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고채도·중명도의 색이 액센트로 사용되고, 파랑이나 청록과 같은 난색계도 대비색으로 좁은 면적에 나타날 때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건물이나 옹벽, 담장, 보도와 같은 고정된 것은 저채도색이나 무채색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배경이 되게 하고 꽃·나무·깃발·차양·자동차 등이 배경 앞에 놓인 하나의 그림으로 부각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돋보이는 색, 즉 사람의 피부나 머리카락의 색이 눈에 잘 띄게 배경색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락시설이나 박람회, 전시회 같은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 한껏 강한 색으로 치장되어도 좋을 것이다.

한 나라의 환경색채는 곧 그 나라 문화의 반영이고 따라서 급격히 세련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계속 계몽하고 교육하여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은 경주하여야 하며 색채계획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전문성 존중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著 者 紹 介 ◇



박 동 서

1933년 서울 생. 1962년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1965년 서울대 석사. 1986년 서울대 박사. 1974~1998년 아주대 교수. 1984년 일본 동경공대 객원교수. 1988~1990년 서울시 색채심의위원장. 1992~1994년 한국색채학회 회장. 1998~현재 거제대학 학장.